



차茶향 속에 깊어가는 여름

(주)미창패케이지
대표이사
조봉제

나는 경상남도 함안에서 농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옛 어른들의 선호사상인 아들로 태어남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반백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일없이 건강하고 평탄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작지만 복이라면 복이다.
남자라면 우리나라 국방의무인 병역의무를 잘 감당해 내고 또 시골촌놈이 서울에서 무사히 졸업하고 이 길을 걷고 또 차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한의 인연인지도 모르겠다. '하늘이라는 대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1의 위대한 선물인 차엽을 자연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럽고 과학적인 차 박스를 제작 생산하여 결작품을 완성시켜야지' 하는 일념으로 이 업을 하다 보니 전국의 차인들과 또 제다공장의 장인들과 명인들을 지인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내가 들은 풍월과 어깨 너머로 행다 및 차의 법제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까지 차 행사장에는 빠짐없이 다니는 다객 노릇을 한지도 어연 스무 해가 넘어가는가 보다.
그러다보니 결눈으로 차의 향과 색 그리고 모양을 보고도 내 나름으로 이론을 펼치려드는 얼치기 반 풍수가 되어 간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차 문화의 비극인지도 나는 아직까지 판단이 어려운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옛그제 모 제다 공장에서 음다와 난생 처음 '차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보다' 하며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몇 시간 견학을 다녀간 사람이 '사장이요 차 기술자' 라고 품을 잡고 황토 개량한복에다가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차를 법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았다. 중국차와 세계 각국 차가 대량으로 수입 되고 있는 요즘 어설피 생산해서 특우전이니 명차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차 생엽과 무쇠 솥, 유념하는 자리만 있으면 만든 차가 명차가 되고 기술자가 되는 세상이니 어찌 경건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또 믿고 구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공신력이 있는 관공서 등 단체에서 제다교육과 기술자들의 심미안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시켜 우리 전통 차의 백년대계를 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차는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귀중한 기호식품으로서 우리 한국 차인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규격 품과 다양한 종류의 차가 생산이 되었으면 한다.
부초차인 불발효차만 차가 아니라 오래두고 차향의 진수를 음미 할 수 있는 발효차도 연구 개발하여 이 나라의 차인들과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음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박한 바람이다.

자연과 마음을 담은
다기에 오래도록 사랑
받을 수 있는 우리만의
차 한 잔을 만들어 음다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